

08
2024

재외동포의



특집 1 _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취임

특집 2 _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특집 3 _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첫 우승

기획 _ 제79주년 광복절 행사 동포단체 주최로 세계 곳곳서 열려

정책 돋보기 _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법을 서비스 시행

이슈 & 화제 _ 파리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한국인의 위상 드높인 재외동포들



한국어, 처음의 한류이자 영원한 한류

그 때의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작년 10월, LA시의회는 ‘한글날’을 시의 공식 기념일로 선포했고, 공립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시티 칼리지(LACC)에 세종대왕 동상이 우뚝 섰습니다. 게다가 LA한국교육원 담당 지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가 82번째로 한국어반 개설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계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통상 한국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에 한인 학부모들의 요구로 한국어반이 생기는데, 이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설문에서 ‘비한국계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력하게 한국어 개설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놀랍고도 기쁜 일들이 연이어 생기니 교육원도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근 종합쇼핑몰에서 ‘LA 첫 한글날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여든 분의 이름을 묻고, 작은 캔버스에 한글로 이름을 정성스레 써 드렸습니다. ‘Micheal’을 ‘마이클’로 말이지요. 캔버스 300개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이름을 적어드리며, 자연스레 한글날의 의미도 설명하고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알파벳 K의 위력을 느끼며 괜스레 어깨도 짝 펴지고 가슴엔 불두덩 같은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LA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오드리 레비안 학생은 자신의 한글 이름을 들려다보며 ‘이건 글씨가 아니라 예술작품 같아요’라고 외칩니다. 표현이 풍부한 이곳 사람임을 생각하더라도, 공기를 가로질러 감동이 전달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교육원 복도에 전시된 석학들의 한글에 대한 찬사가 적힌 패널 앞에 섰습니다. 제임스 맥컬리, 존 만, 제프리 샘슨 등 이름 정도는 기억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한글 사랑으로 유명한 펄 벅(Pearl Buck)-그는 1960년대에 박진주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 말했던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라는 칭찬 정도만 기억하고 있던 저는 그 패널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요약하면 ‘한글은 가장 독창적, 체계적, 과학적이고, 인류가 꿈꾸는 최고의 아름다운 알파벳’ 정도가 되겠습니다. 순간 그 헌사들은 K팝 아이돌 SNS에 달린 수많은 ‘좋아요’와 ‘칭찬 댓글’처럼 읽혔습니다. 한글은 아주



강전훈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장

오래전부터 적어도 지구의 언어학자들에게는 한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맨 처음의 한류라고 생각합니다.

K팝을 시작으로 2000년대부터 심상치 않았던 한류는 바야흐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OTT에서 가장 먼저 소비되는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사랑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걱정도 합니다.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와 언젠가 한류는 꺾일 것이라는 전망까지요. 저는 이 분야의 소비자이지만 전문가는 아닌지라 의견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래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는(물론 저만의 주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한류로부터 현재의 한류를 떠올려 보면, 뚜렷한 한 가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파도가 모래톱을 만들듯이요. 그것은 바로 매력적인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뚜렷한 학습열입니다. K팝을 따라 부르고 K드라마에 푹 빠지고, 한국의 음식과 드라마 배경이 되는 도시가 궁금해져 한국 여행을 열망하게 되고 결국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10년 전, LA에 한국어반을 개설한 정규학교는 49개였는데 지금은 83개 학교에서 9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정규학교의 정식과목으로 말이지요. 거의 두 배 정도 늘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들은 LA에서만 400명에 육박하고 그중 60%는 비한국계 응시자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대학 유학을 꿈꾸고 시험을 준비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공존하는 미국에서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한류는 더 커지기도 조금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파도의 오름과 내림 속에서 ‘한글, 한국어’라는 ‘처음의 한류’는 뚜렷한 모래톱처럼 생명력 있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한민족 반만년 역사의 역동, 섬세하고 은근하고 높은 기상을 품은 문화, 따뜻하고 심지 굳고 사려깊은 사람들의 포말은 흔적을 반드시 남길 것입니다. 언어는 문명의 근간이니 쉽게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예상이 됩니다. 처음의 한류였던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와 매력이 넘치는 한국어는 이제 영원한 한류가 될 것입니다. **창**



02 창을 열며	한국어, 처음의 한류이자 영원한 한류 강진훈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장
04 특집 1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취임 1. “달라진 재외동포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 “정부, 히로시마 아픔 결코 잊지 않을 것” 3. “동포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할 것”
10 특집 2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1.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성황리에 열려 2. 고려인 3세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부의장 3. 9월 재선 도전 아시아계 첫 오스트리아 한인 3세 연방 하원의원
14 특집 3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첫 우승
16 기획	제79주년 광복절 행사 동포단체 주최로 세계 곳곳서 열려
19 정책 돋보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법률 서비스 시행
20 이슈 & 화제	재일동포 3세 허미미 유도선수 “애국가 미리 외웠는데...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 태국에 태권도 올림픽 2연패 안긴 최영석 감독
23 OKA 뉴스	러시아·CIS 고려인 청년들 “재외동포청 ‘한국이해과정’, 찝줄 알게 했다” 외
24 인터뷰	친모 찾는 미국 입양한인 배금영씨 “늘 모국 가고 싶었어요” 미주한국문인협회, 올해 ‘미주문학상’에 성민희 작가 선정
25 뉴스 속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자녀와 ‘엄마나라 문화체험’ 일본 대학생들, 한달간 한국어 공부 위해 방한...한복·다도 체험
26 재외동포청 공지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지원자 모집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달라진 재외동포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취임식서 “동포사회와 상생 위해 개방·소통” 강조



이상덕 청장은 취임사에서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은 7월 31일 취임식에서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및 국민과의 공감을 토대로 늘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의 수장으로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특히 신생 기관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이 모인 만큼 하나 된 팀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이끌면서 공직자로서 신념을 갖고 동포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사회가 대한민국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해외 역량으로 성장한 것을 잘 반영해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청장은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주 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다음은 취임사 요지.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청은 출범 이후 불과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정책 체계화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원폭피해자, 파독근로자, 사할린, 고려인 동포, 입양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의 외연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강화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도 더욱 내실있게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1여 년간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의 거주국 간의 관계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재외동포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포청이 신생 기관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불가피하게 모였지만, 내부적으로 조속한 시일내 원팀의 조직문화와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포청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면, 우리 청 자신이 그러한 과제를 이행할 조직문화와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공직 가치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직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없으면,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공직가치로 무장된 바탕 위에, 창의적·창조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들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포사회는 더 이상 모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공식적기록으로는 1902년 제물포항에서 사탕수수 노동자 121명이 하와이로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고구려·백제의 유민, 일제 강점기 만주·사할린 이주 등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 형성의 배경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자리잡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이 7월 31일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오랫동안 재외동포사회와 본국과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포사회는 과거와는 판이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모국과 도움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해외 역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직전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동포분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신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750만 재외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동포청이 되도록 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5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정부, 히로시마 아픔 결코 잊지 않을 것” 이상덕 청장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추도사서 밝혀

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에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엄수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린 위령제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와 차별로 얼룩진 고통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지난 세월 우리 정부가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폭 한국인 희생자분들은 물론 일본 땅에 남아계신 동포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히로시마의 아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그러면서 “정부는 다시는 79년 전의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5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노력할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제단에 바친다”고 약속했다.

1970년부터 매년 8월5일 열린 위령제는 재일동포 피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55번째를 맞은 올해 위령제에는 이 청장을 비롯해 임시흥 히로시마 총영사와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김기성 히로시마민단 단장 등 재일 동포들이 참석했다.

또 일본 측에서도 사이토 데쓰오 일본국토교통성 대신(장관급)과 히라바야시 아키라 공명당 의원, 히라구치 히로시 자민당 히로시마현련 회장, 미카미 에리 입헌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피폭자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위령비를 찾았다.

한일 정상, 작년에 위령비 동반 참배

재외동포청장이 정부를 대표해 위령제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G7 계기 히로시마방문 중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폭 1세 및 후손 20여 명과 만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역사상 최초로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동반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원폭 피해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로는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내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제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지시를 했다. 원폭 피해자들을 보듬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

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뒤 추석을 맞아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42명을 고국으로 초청해 위로했다.

7월31일 취임한 이상덕 청장은 “부임한 후 첫 방문지가 히로시마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재외동포사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던 김화자 전 한국부인회 히로시마지부 부회장은 건강 문제로 이번 위령제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과거보다 미래를 생각하자며 조언을 잊지 않았다.

일본측 정관계 인사들도 희생자 기려

피폭 당시 4살이었던 김화자 전 부회장은 “피폭 때 잃은 친구와 선생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면서 “히로시마에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다. 앞으로는 전쟁 없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미군이 떨어트린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재일 한국인은 5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동포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할 것”

이상덕 청장, 취임 첫 행보서 재일동포와 적극적 소통 나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참석을 전후 해 동포들과 만나, 현지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재일동포사회와 적극 소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4일 리가로알호텔 히로시마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한인회 등 히로시마 동포 4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권준오 한국인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작년 대통령께서 원폭 피해동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동포청장이 내년에도 위령제에 참석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김기성 민단 히로시마본부 단장은 “피폭자 2만

명 가운데 1만 7000여명의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며 “동포청이 현황 파악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청장은 또 5~6일 오사카를 방문해 재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간사이 지역의 동포들과 만나 동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포간담회 개최 및 민생현장 방문…동포사회 의견 청취

이 청장은 5일 간사이 지역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한인회 등에서 활동하는 재일동포 50여 명을 초청해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에 따라 이뤄낸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강화하기 위해 재일동포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일동포들은 한 목소리로 한일관계 회복을 이뤄낸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지지를 보내면서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재일동포사회가 기여할 차례라고 화답했다.



이상덕 청장(오른쪽)이 6일 재일동포들의 역사와 함께한 이쿠노 코리타타운을 찾아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함께하고, 동포들의 눈높이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청취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5일 간사이 지역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과 한인회 등에서 활동하는 재일동포 50여 명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일동포들은 재외동포청에 대해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 해광 관서한국인연합회 회장은 실질적으로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 현지 공관과 동포들 간 화합할 수 있는 행사 확대, 한글교육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 공산군 민단교토본부 의장은 “민단의 최대 과제는 차세대 육성”이라면서 유학생 등 젊은 세대들을 민단에 적극 참여시킬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권오인 민단시가본부 의장은 “어린 세대들이 줄고 있다”며 “차세대 교육에 적극 투자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병채 민단 오사카본부 부단장도 “재일민단 지원금을 민단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노후화된 민단 건물의 긴급보수 지원을 요청했으며, 권영효 민단나라본부 부인회장은 “나라현의 아스카 지역은 예로부터 한국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향후 한일친선 활동에 동포청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재일동포사회, 윤 정부가 일궈낸 한일 관계 회복 지지 한 목소리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출범 1년이 지난 재외동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동포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세대교체 및 신정주자·귀화자 증가 등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재일동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단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차세대 동포들이 동포사회 전면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일에는 재일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

분투하는 한글학교 교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노건희 오사카온누리한글학교 교사는 “한류확산 등으로 한글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한국어 교재 구하기도 어려움이 있어 교사들의 요구 사항과 일본 지역에 맞춘 양질의 교재를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화자 이코미한글학교 교장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글학교 신뢰도가 높아지고 참가 동포수와 우수한 교사수가 늘고 있다”면서 “한인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은 우리 청의 주요 정책 목표로서 한글학교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또 이민진 작가의 장편소설 ‘파친코’의 무대인 오사카의 이쿠노 코리야타운을 방문해 동포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재일동포사회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나갔다. [▶](#)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14개국 100여명의 한인 정치인이 참가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개막식 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성황리에 열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지혜 모이길”

전 세계의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개막했다.

'우리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순자산'(Our network is our net worth)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다. 총 14개국에서 96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영교·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등 정관계 인사 50여명도 함께했다.

개막식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특별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다지고 국적과 문화장벽을 넘어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까지 부정하며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하나의 민족을 부정하는 북한의 행태는 북녘 땅과 깊은 연고를 가지고 계신 수많은 재외동포들에게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이 이러한 배경 하에 이뤄졌다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인 자유를 북녘땅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재외동포 여러분들도 ‘남과

2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재외동포청장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가자를 위한 환영오찬에서 이상덕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은 원래 따로'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4개국서 96명 참가...역대 최대 규모

조 장관은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두 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잘 굴러가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역사사지의 자세로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연아 마틴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포럼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과 각자의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 정치인들이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거주국에서의 정치활동과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활동이 긴밀하게 협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상덕 재외동포청장도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상생발전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정치력 신장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위상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동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의 경우 다니엘 배 미국 오콜라호마주 하원의원(29·3선), 김 에르네스트 우즈베크 자유민주당 하원 산하 청년의회 의원(27), 야닉 슈티 오스트리아 신오스트리아당 최연소 연방하원의원(29) 등 45세 이하 참가자 비율이 예년과 달리 50%를 넘어섰다. 올해 정식 발족한 미국 LA한인보좌관 협회 임원들을 포함한 각국의 의원 보좌관들도 다수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개막식이 끝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즐기며 첫째 날을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청장, "한인정치인들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적극 지원"

참가자들은 대회 둘째 날에는 실비아 루크 미국하와이주 부지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패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서현우 미국 랜초 팔로스버디스 시의원, 조 예레나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시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한인 정치인들의 도전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들과 멘토링 시간도 열렸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포럼 성과를 돌아보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평화·안보, 역사·헤리티지, 복지, 교육·문화 4개 주제별로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 열린 토론회도 벌였다.

이 청장은 오찬 인사말을 통해 "최근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북미를 넘어 동남아 등 여타 지역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한인 정치인들의 크고 작은 움직임이 한인사회와 거주국 사회를 보다 밀접히 연결시키고, 모국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포청으로서도 한인 정치인들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날에는 역사·문화·산업 탐방시간을 가졌다. 평택 서해수호관과 LG이노베이션 갤러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둘러봤다. [▶](#)

고려인 3세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부의장

조 엘레나 “IT 스포츠 인프라 구축하겠다”

“옛 소련 시절 부유층 자녀들만 스포츠를 할 수 있었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기회를 주는 스포츠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조 엘레나(49)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정치 영역에서 발휘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하는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알마티 시의원으로서 알마티시 스포츠 시설관리국장으로도 활동 중인 조 부의장은 “IT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스포츠 선수들을 돕는 트레이너 육성 센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마티시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그의 주도로 각종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만3천명 수용이 가능한 스포츠센터 ‘알마티 아레나’를 3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중이며, 내년에는 빙상장과 수영장도 착공할 계획이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올림픽 트레이닝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쌓기 시작했다. 또 카자흐스탄 올림픽위원회 마케팅 수석 전문가, 카자흐스탄 패럴림픽위원회 컨설턴트, 약불락 올림픽센터 이사 등을 지내며 다수의 올림픽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카자흐스탄 집권 여당인 아 마나트당의 비례대표로 5년 임기인 알마티 시의원에 당선됐다. 동계스포츠 기반 마련에도 관심이 많아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 피겨스케이팅협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국제 피겨 무대에서의 입지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고려인 3세인 조 부의장은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이사도 맡고 있다. 그의 조부모는 1937년 겨울 소련 극동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당한 아픔을 겪었다. 어릴 적 할머니가 강제이주 경험담을 들려줬고 따로 공부하기도 해 슬픈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며 인터뷰 도중 여러 차례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고려인 3세인 조 엘레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의회 부의장

그는 “소련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젊은 여성 중에서는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당시 카자흐스탄에 온 10만명의 고려인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는 여전히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낮선 땅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후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조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며 “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한국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포럼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한인 정치인이 직면한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공부하는 재외동포 장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창**

9월 재선 도전 아시아계 첫 오스트리아 한인 3세 연방 하원의원

야닉 슈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노력하세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노력하세요. 도전하다 넘어지면 더욱 단단해져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시아인으로 처음이자 최연소인 야닉 슈티(29) 오스트리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오는 9월 열리는 선거에서 반드시 재선에 성공해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하는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슈티 의원은 대구가 고향인 외조부가 일제강점기 때 만주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이민, 1995년 인도인 아버지와 의사인 한국계 오스트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비엔나 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를 지낸 외조부는 전공인 비교문학을 가르치며 한국문학을 적극 알려 비엔나대학에 한국학이 정규학과로 설립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 요즘은 한국학에 수강신청 하는 학생들이 넘쳐날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일찌감치 정치에 눈을 뒀다. 2012년 고교 졸업 후 개혁과 변화를 기치로 내 건 젊은이들이 창당한 신오스트리아당(NEOS)에 입당했다. 그해 오스트리아 적십자 구급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빈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다.

이듬해부터는 당내 학생조직인 JUNOS 간부로 활동하며 총선을 지원했다. 2016년엔 JUNOS 연방 의장을 지냈으며 2019년 24세의 나이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변호사가 꿈인 그는 의정 활동 중에도 공부를 이어가 지난 2021년 빈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젊은이를 위한 변호사”를 슬로건으로 내걸어 젊은 한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당선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오는 9월 총선에서도 연금 개혁 등을 공약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선거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슈티 의원은 “이번 한인정치인포럼을 통해 공통된 스토리를 가진 세계 각국의 한인 정치인들로부터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 기대가 크며 흥분된다”면



야닉 슈티 오스트리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자와 만나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저를 뽑아 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많은 에너지를 받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인들 커뮤니티에도 부지런히 참여하고 있다는 그는 특히 “빈에 있는 한글학교를 돕기 위해 학교 장소를 알선해 주는 등 한국과 오스트리아간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폭 넓게 가교역할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과도 긴밀히 협력 하고 있다는 그는 총선이 끝나면 의회 회관에서 한국 전통음식과 오스트리아 와인 페스티벌을 열기로 최근 대사를 만나 협의했다고 귀띔했다. **[장]**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첫 우승 ‘기적’

‘동해 바다’ 한국어 교가, NHK 통해 일본 전역 방송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다.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교토국제고는 한신고시엔구장 건설 100주년에 열린 여름 고시엔 우승팀이자 교토부 대표로는 68년 만에 정상에 오른 팀으로도 기록되게 됐다.

경기는 1회부터 ‘0’의 행진이 이어지며 팽팽한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교토국제고는 5회 초 2사 1, 3루, 6회 초 1사 2, 3루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타가 나오지 않아 득점하지 못했다. 간토다이이치고도 6회 말 2사 2루, 7회 말 2사 2루 기회에서 타자가 땅볼로 물러나 선취점을 내지 못했다.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는 마지막 정규 이닝인 9회에 각각 선두 타자가 출루하며 득점을 노렸으나, 모두 점수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교토국제고는 이어진 연장 10회 초 무사 1, 2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하는 승부처기에서 안타와 볼넷, 외야 뜬공 등을 묶어 2점을 냈다. 이어 10회 말 구원 등판한 니시무라 잇키가 간토다이이치고에 1점만 내주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결승서 연장 접전 끝 2-1 승리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고향자리”로 시작되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됐다. 고시엔에서는 출전학교 교가가 연주되며 NHK는 모든 경기를 방송한다.

고마키 노리쓰구 교토국제고 감독은 우승 인터뷰에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일본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고시엔) 결승전 교토국제고와 간토다이이치고 경기. 2-1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한 일본 내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재학생들이 관중석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서 “대단한 선수들에게 감탄했다”면서 “전원이 강한 마음을 갖고 공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토국제고는 이번 대회 본선 1차전에서 7-3으로 승리한 뒤 2차전부터 8강전까지 세 경기 연속 4-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펼쳐진 준결승전에서는 아오모리아마다고교를 상대로 2점을 내준 뒤 3점을 올리는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감독 “대단한 선수들에게 감탄”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워 ‘꿈의 무대’로 불린다. 올해는 일본 전역 3천715개 학교(3천441개 팀)가 참가했지만 49개 학교만 본선에 올랐다. 1999년 야구부를 창단한 교토국제고가 여름 고시엔 정상에 선 것은 기적으로 평가된다. 학교 규모가 작은데다가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해 짧은 편이기 때문이다.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마운드로 몰려나오고 있다

교토국제고는 앞서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2년 여름 고시엔에도 본선에 나갔으나 1차전에서 석패했고,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중·고교생을 모두 합해 학생 수가 160명가량인 소규모 한국계 학교다. 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이고 한국계는 30%가량이다. 교토국제고는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1947년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이다.

주일본대사 “한일 양국에 빛나는 감동 선물”

1958년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아 현재의 교토국제고로 이름을 바꿨다. 학생 모집을 위해 야구부를 창단해 1999년 일본 고교야구연맹에 가입했으며 고교생 138명 중 야구부 소속이 61명이다.

박철희 주일본 한국대사는 시합 직후 발표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일 협력을 상징하는 교토국제학원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한일 양국 국민에게 가슴 깊이 간직될 빛나는 감동을 선물했다”며 “우승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도 교토국제학원이 더욱 큰 영광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를 지켜 본 한국인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한 네티즌은 “교토국제고는 현재는 일본인 학생 중심의 국제학교”라면서 “야구부는 거의 전부가 야구가 좋아서 각지에서 모인 일본인 야구소년들이며, 일본인 야구소년들이 한국계학교에서 고시엔에 가기위해 노력했고, 한국어교과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79주년 광복절 행사 동포단체 주치로 세계 곳곳서 열려

미국 · 일본 · 쿠바 · 멕시코 등지서...주일본대사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내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로 각각 열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재외동포 단체들 주최로 경축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한인회는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주뉴욕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뉴욕 주재 한인단체와 지역 정치인, 교민 등 15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유진희 광복회 뉴욕지회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그 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라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흉계”라는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김익환 주뉴욕 총영사, “오늘날 한국은 기적 중의 기적”

이어 김익환 주뉴욕 총영사는 경축사에서 “광복,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며 “광복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힘을 쏘아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그것은 미국이 선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



뉴욕한인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의친왕의 딸인 이해경 여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감사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는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왼쪽)과 이해경 여사.

민국 내부의 중북 좌파 세력들을 분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축식을 지켜보던 한 인사는 “한국에서 광복절을 맞아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와중에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포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재일민단 주최 1000여명 참석 성황

일본에서도 15일 오전 일본 도쿄 이타바시구립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일본 최대 동포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주최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철희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했다. 박 대사는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



김익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주뉴욕총영사관,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이중 민단 단장은 "재일동포 여러분과 함께 (광복절을) 경축함과 동시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셨던 수많은 애국선열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의 평화통일과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와 안녕을 위해 확고한 자세로 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단장은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재일동포들이 한일 양국 민간 우호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1부 기념식이 끝나자 2부 축하공연에서 초대가수 태진아가 첫 곡으로 '동반자'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교국' 쿠바에서도 민주평통 주관으로 열려

또한 한국과 지난 2월 수교한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 79주년 광복절 행사가 열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이베로스타 파르케 센트랄 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인 후손,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자문위원, 미국 휴스턴 상공회의소 및 한인회원, 민주평통 전 미주지역회의 부의장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 쿠바대사관 공관 개설 요원인 마리오 알주가라이 로드리게스 주중국 쿠바대사관 공사참사관의 부친을 비롯한 쿠바 측 인사도 자리했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의류, 고추장, 고춧가루, 스피커 등을 쿠바 한인후손회와 쿠바한글학교에 전달했다. 휴스턴 상공회의소와 한인회에서도 다양한 한식 재료를 지원했다.

중미·카리브협의회는 한글학교 학생과 쿠바에서 K팝 행사를 자체적으로 펼치며 한국문화 알리기에 앞장서는 사회문화 프로젝트 단체 '아르코르' 회원에게 장학금도 줬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쿠바서 독립운동 김성재 등 포상

민주평통 측은 이른바 ‘이민 가방’이라고 부르는 대형 수하물 20개에 한국 음식과 물품을 챙겨가 쿠바 공항 세관에 별도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마르타 임(독립운동가 임친택 선생의 딸)을 비롯한 한인 후손 분들이 쿠바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추장을 보며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며 “내년에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쿠바에는 1921년 첫 한인 이민자들이 들어와 정착했다. 현재 1천100여 명의 한인 후손이 아바나와 마탄사스, 카르데나스, 카마게이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한 김성재 선생(건국포장) 등 12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 김성재 선생은 쿠바 이민 2세 출신으로 1930~40년대 쿠바에서 대한민국회 마탄사스지방회 서기, 하나바지방회 청년부장, 재규한족단 서문 정서기 등으로 활동했으며, 쿠바 지역에서 한인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이번 포상에는 지난 2월 쿠바와의 수교에 발맞춰 쿠바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한 결과 김성재 선생 이외에도 재규한족단 단장을 지낸 이종현 선생과 멕시

코와 쿠바지역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는 김상준 선생에게도 각각 애족장과 건국포장을 수여하게 됐다.

멕시코 유카탄한인후손회도 기념행사 개최

멕시코 유카탄한인후손회도 제79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지난 11일 유카탄 주 메리다시 기념 행사장인 팔라치오 레알 에스파냐에서 500여 명의 한인 후손과 현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멕시코대사관(대사 허태완) 소속 최진철 영사는 대사관을 대표해 기념식에 참석,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멕시코 한인 선조들의 대한민국 광복을 위한 적극적인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유카탄 주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알투로 아브레우(Arturo Abreu) 유카탄 문화부 장관실 국제협력팀장은 “멕시코 유카탄 주에 정착한 한인들은 한국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발전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이 양국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한인후손회에서 준비한 사물놀이, 부채춤 등 다채로운 한국문화 공연과 그리고 케이팝(K-Pop) 공연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멕시코한국대사관은 그동안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보존과 권익 신장을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삼일절 ▲한인의 날 ▲광복절 등 각종 기념행사 지원 ▲메리다 이민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한국어 및 한국 전통문화 보급 등을 실시해 왔다.

대사관 측은 “특히 내년(2025년)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추진을 위해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지난 10일(현지시간) 쿠바 아바나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카리브협의회 주관 79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제공.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법률 서비스 시행

이상덕 청장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정부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이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총괄한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충남 아산, 강원 원주 등 전국 25개 도시에 2천900여 명이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자녀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동포들의 경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동포사회는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25개 거주지 직접 방문해 상담도 진행

이에따라 재외동포청은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 법률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동일인 증명, 성분변경 허가 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덕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친자를 확인하려는 동포에게는 기존 소비자가 대비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적·출입국 등 국내 정착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폼을



지난 5월 사할린 동포 황순남 할머니의 영주귀국 모습.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맨 왼쪽)이 영주귀국 동포를 부축하고 입국장을 들어서고 있다.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료 법률서비스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변호사(010-8848-7828 / chobyun@gmail.com)
- 지구촌동포연대(KIN): 최상구 대표(010-8149-2643)
- 러시아어(통역): 서 드미트리(010-2831-6208)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에서 은메달,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6일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에 조성된 독립운동가이자 현조부인 허석 지사의 기적비를 찾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일동포 3세 허미미 유도선수 “애국가 미리 외웠는데…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큰 감동 선사” 축전

재일동포 허미미(21·경북체육회)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유도 여자 57kg급 은메달을 따내며 한국 유도에 첫 메달을 안겨 주목을 받았다.

결승전을 아쉽게 마치고 만난 허미미는 “(할머니에게) 오늘까지 유도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고 싶어요”라고 씩씩하게 말했다.

허미미는 “아쉽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결승전까지 나가서 정말 행복했다. 메달을 딴 것도 너무 행복하다”고 웃으

며 말했다.

애국가 가사를 미리 외웠던 허미미는 “못 불러서 아쉽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꼭 부르고 싶다”고 4년 뒤를 기억했다.

일본 취재진에게 “한국 대표로 뛰어 행복하다”

허미미는 “(4년 뒤엔) 나이를 먹었을 테니까 체력이 더 좋을 것 같다. 다음 올림픽에선 금메달을 꼭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허미미는 이날 결승 연장전에서 나온 세 번째 지도 판정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허미미는 연장전 시작 2분 35초에 메치기를 시도하다가 위장 공격

판정을 받고 아쉽게 반칙패했다.

그로부터 약 50초 전에 상대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도 두 번째 지도를 받고 반칙패까지 하나만을 남겨뒀던 터라 더욱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도 지도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아유를 퍼붓기도 했다.

허미미는 “위장 공격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경기의 일부니까 어쩔 수 없다. 다음에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유도를 하고 싶다”고 의젓하게 말했다.

앞선 8강전에서 ‘천적’ 앵흐릴렌 라그바토구(몽골)를 꺾었던 것에 대해선 “매번 져서 불안감이 있었는데 처음 이겨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아쉬운 ‘반칙패’ 판정에도 의연...“그것도 경기의 일부”

이날 공동취재구역에서 허미미는 한국보다 일본 기자들에게 더 오래 붙잡혀 있었다. 십수 명의 기자가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선생의 5대손인 허미미의 이력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 세례를 쏟았다.

허미미는 일본어로 “이렇게 한국 대표팀에 합류해 한국을 대표해 (올림픽에서) 경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본 취재진이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결단에 대해 질문하자 허미미는 이번에도 “(그 덕에)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많은 선수와 같이 겨룰 수 있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행을 이끌어 준 할머니가 각별했는지 허미미는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허미미는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국을 택했다.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해주셨다”며 “나는 할머니만 믿고 따르며 살아왔으니 한국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미미의 인생은 그의 할머니에 의해 바뀌었다. 할머니는 2021년 “한국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허미미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허미미는 그 길로 바로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고 이듬해부터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를 누볐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전에서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세가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한국 국가대표로 올림픽 무대에서 멋진 경기를 펼친 모습은 대한민국뿐만 아닌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허미미 선수를 변함없이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장**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7kg급에 출전한 허미미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레나 샹드마르스에서 캐나다 크리스타 데구치와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태국에 태권도 올림픽 2연패 안긴 최영석 감독

태국 태권도 영웅 파니팍 윙파타나깃 “너무 기분 좋고 영광스럽다”



태국 패니팍 윙파타나깃이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중국의 구오칭에게 승리한 뒤 최영석 감독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왼쪽). 태국 패니팍 윙파타나깃이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에서 중국의 구오칭에게 승리한 뒤 최영석 감독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태국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태권도 종목에서 태국이 2연패를 달성하자 금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게 화제를 모은 사람이 있다. 바로 재외동포인 최영석 태국 태권도 감독이다.

7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의 그랑 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에서 태국의 태권도 영웅 파니팍 윙파타나깃이 금메달을 확정할 순간 한국 출신 최영석 감독에게 달려가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경기를 마친 파니팍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영석 감독님도 이제 태국인인데, 태국 사람들이 함께 두 번째 금메달을 땀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석 감독도 “정말 제가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올림픽 2연패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오늘 그 날이 와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면을 지켜 본 한국인들은 “이게 바로 태권도 정신”이라며 한목소리를 이들을 극찬했다.

당초 윙파타나깃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뒤 은퇴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그의 은퇴를 막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한 이가 바로 최 감독이다.

설득 끝에 선수 생활을 계속하게 된 윙파타나깃은 최 감독을 만나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고, 2020 도쿄 대회 때 정상에 오르며 태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파리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태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최 감독은 지난 2002년부터 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다. 처음엔 8개월 계약으로 이곳에 왔다. 그런데 그해 치러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태국 태권도 역사상 첫 메달이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감독을 선수들이 붙잡았다. 그렇게 올해로 22년째 태국 태권도를 책임지고 있다. 윙파타나깃은 최 감독에게 13년간 지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감독 부임 이후 태국은 아시안게임과 세계챔피언십을 나란히 정복하더니 올림픽 금메달까지 수확하는 등 태권도 강국으로 성장했다.

태국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은 최 감독은 ‘타이거 최’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호랑이띠인 데다 선수들을 엄격하게 지도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 일찌감치 지도력을 인정받아 2006년 태국체육기자협회에서 주는 최우수지도자상을 받았고, 같은 해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

러시아·CIS 고려인 청년들 “재외동포청 ‘한국이해과정’, 핏줄 알게 했다”

이상덕 청장 “청년들 모국과 유대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0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한국이해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진행된 이 과정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8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과 청소년 3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중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인 다니엘 오로자쿠노프(21세, 키르기스스탄) 씨는 “한국이해과정을 통해 나의 핏줄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나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키르기스스탄에 돌아가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고 의지를 보였다.

행사 공동 주최 측인 경인교대는 참가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 역사 교육과 국악 및 태권도, 한국 요리, K-팝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MBC, 한국민속촌, 서울의 고궁 등 방문과 한국의 발전된 산업 현장 견학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수료식 후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방문해 동해와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고, 23일



러시아·CIS 고려인 청년들 ‘한국이해과정’ 수료식 모습.

거주국으로 돌아갔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해과정’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 청년과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매일경제·MBN,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나선다

10월 22~24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위한 홍보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매일경제·MBN(회장 장대환)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기관은 23일 서울시 중구 매경미디어그룹 본사에서 이상덕 청장과 장대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는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매일경제·MBN은 오는 10월22~24일 전북 전주시 전



이상덕 청장(오른쪽)과 장대환 회장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북대 일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 대회에 역량 있는 전 세계 재외동포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데도 뜻을 모았다.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 스타트업 경연대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는 재외동포 경제인,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친모 찾는 미국 입양한인 배금영씨 “늘 모국 가고 싶었어요”

1977년 10월24일생... “어릴 때 왜 입양됐는지 항상 궁금했었다”

“저는 늘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친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친가족 일부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미국 입양 한인 애비 구리치(한국명 배금영·47) 씨는 6일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인 지원팀에 보낸 뿌리 찾기 사연에서 “어렸을 때 왜 입양됐는지 항상 궁금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입양 기록에 따르면 배씨는 1977년 10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이듬해 4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애리조나주에서 주로 거주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는 “백인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힘들었다”며 “나를



미국 입양 한인 배금영 씨

제대로 이해해줄 사람이 없었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곤 했다”고 고백했다.

배씨는 다른 입양인들과도 소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인 입양인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1년 세계한인입양인협회(KAA)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처음 찾아 입양기관에서 자신의 입양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 친부모의 이름과 당시 주소지를 찾았으나 친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배씨는 “친모는 내가 태어날 때 젊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주한국문인협회, 올해 ‘미주문학상’에 성민희 작가 선정

수상작은 ‘그들은 그들 삶의 영웅이었다’, ‘그날을 위한 선택’ 등 5편

미주한국문인협회(회장 오연희)는 ‘제30회 미주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성민희 작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상작은 ‘그들은 그들 삶의 영웅이었다’, ‘그날을 위한 선택’ 등 5편이다. 시와 소설이 아닌 수필 작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작가는 “이민 사회라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내 정신과 육체에 흐르는 한국적인 정서를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풀어내고자 했다”며 “이민자의 삶이 녹아 있는 경험들은 무한한 글쓰기 자원을 제공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출신인 그는 교사로 일하다가 1981년 LA로 이주했다. ‘수필시대’(2006)와 ‘현대수필’(2012)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고, ‘한국소설’(2023)과 ‘수필미학’(2024)을 통해서는 각각 소설, 평론으로도 등단했다. 2018년 한국산문문학상을 받았고 ‘사람이 고향이다’, ‘아직도 뒤척이는 사랑’ 등 다수의 수필집을 펴냈다.

재미수필문학가협회 회장과 이사장, 재미수필문학상 운영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감사, 재미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디카시인협회 오렌지카운티 지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30회 미주문학상’ 수상한 성민희 작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 자녀와 '엄마나라 문화체험'

하노이한인회-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공동 주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와 함께 모국을 찾아 역사와 문화, 언어 등을 배우게 하는 행사가 열렸다.

베트남 하노이한인회(회장 장은숙)는 지난 4~15일 충북 제천시에 거주하는 한-베트남 다문화 8가정을 초청해 '엄마나라 알기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하노이한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는 한베 다문화가족 2세들에게 베트남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하노이 한베가족협회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을 찾아 딸과 손주 등을 만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 친정 부모 초청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다문화 2세 자녀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엄마나라 문화체험' 참가 한-베트남 다문화가족

이 행사를 처음 기획했다. 행사는 문화특강,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방문, 하이퐁시 LG전자 견학, 친정집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숙 회장은 "충북 내 베트남 다문화 자녀뿐만 아니라 전국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엄마나라 알기운동'이 전개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아시아 지역 한인회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도 이혼과 사별 등으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 자녀를 초

청해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처음 개최했다. 여기부는 지난 12~14일 서울과 경기 과천 등에서 '한-베 다문화가족 청소년 초청캠프'를 진행했다.

일본 대학생들, 한달간 한국어 공부 위해 방한...한복·다도 체험도

신경호 고쿠시칸대 교수, 25년간 인솔... "한국 이해에 큰 역할"

일본 도쿄의 고쿠시칸(國士館)대 동아시아학 전공생 52명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 달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학생들은 이달 4일부터 28일까지 전남대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어 수업을 듣고, 광주 등 국내 여러 명소를 방문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일 오전에는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한복 체험과 다도(茶道) 체험, 부채 및 한식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로 현장 학습에 나섰다.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학생들과 한일 간 문화 차이점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학생 인솔자 방한한 신경호(61) 고쿠시칸대 아시아학부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언론과 만나 "일본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국 연수가 큰 역할



'전남대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 참가한 일본 고쿠시칸대 학생들

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고쿠시칸대 강사 시절인 1999년 학생 6명을 인솔해 한양대에서 처음 한국 연수를 진행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매일경제 · MBN 업무협약(8월 23일)
- 인천시와 업무협약 및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8월 29일)
-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 발표(9월 말)
- 세계한인회장대회(10월 초)
- 한인비즈니스대회(10월22일~24일)

8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2일: 유정복 인천시장 면담
- 4~6일: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위령제, 오사카 동포 간담회, 한글학교 교사 간담회, 민생현장(이쿠노 코리아타운) 방문
- 7일: 김이중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면담
-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 14일: 재외동포협력센터 방문
- 19일: 을지연습
- 20일: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회식
- 21일: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오찬
- 23일: 매일경제 · MBN 업무협약
- 29일: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 30일: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재외동포청 공지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지원자 모집

오는 9월 20일까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80명, 연세대 50명 등 130명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 동포교육문화지원과는 해외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부설기관에 개설된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한글학교 교사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선발 인원은 130명으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80명, 연세대 50명 내외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다.

지원내용은 재외동포청이 개인별 54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24~27만원 내외를 지원하며, 한글학교 교사 개인은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과정 수료 시 국가공인 한국어교원 자격 시험(3급)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 전문대학 졸업 혹은 대학(4년제) 4학기 이상 수료자다.

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 재직 교사(정부파견 또는 휴직 중인 공무원 제외)는 우선 선발한다. 그 중에서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한글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이수자, 2순위는 한글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경력이 많은 교사), 3순위는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이수자(이수과정 많은 교사)다.

지원자는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7월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4년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교사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다. 세부 접수일정은 공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관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발 및 결과 안내는 오는 10월 초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 제출서류는 지원서, 학력증명서, 한글학교 재직증명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 이수증(해당자)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재외동포청 담당자(동포교육문화지원과) 전화: +82-32-585-3208, 전자우편: hongju3931@korea.kr 로 문의해도 된다.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대변자



@overseas_koreans_agency



facebook.com/oka202365



@OKAKOREA